

15만마리 화려한 군무...함평나비 만나러 오세요

17회 함평 나비대축제
내달 1~10일 엑스포공원
26개 체험행사·42회 공연
농특산물 판매장 대폭 확대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함평 나비대축제'가 5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진다. '나비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26개 체험 프로그램과 13개 기념행사, 42차례 문화예술 공연이 열린다. 함평군 상징 나비인 호랑나비를 비롯해 24종 15만 마리의 나비가 화려한 군무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매년 축제마다 온 가족에게 큰 인기를 끈 '야와 나비날리기 체험'은 평일 1회, 휴일 2회 실시된다. 이달 말까지 함평나비대축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아이들은 토끼와 새끼 돼지, 닭을 열심히 쫓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가족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가족돌이 체험'도 선보인다. 젓소목장 나들이와 미꾸라지 잡기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



영산홍이 만개하며 나비가 내려앉은 듯한 함평읍내 수산봉 나비동산. 함평군은 5월 1~10일 '제17회 함평 나비대축제'를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한다. <함평군 제공>

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마법사들이 운영하는 마법학교에 입학해 '환각 마법의 방'과 '공중부양 마법의 방' 등을 체험하고 졸업장을 받는 '카멜롯의 마법학교'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명 관광지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 체험거리' 등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4일에는 함평출신 가수, 탤런트, 연주가가 참여하는 함평 뮤지션 한마당 페스티벌

이 펼쳐진다. 어린이 날인 5일에는 한마당 잔치 및 경연대회를 개최해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재미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7일에는 '제4회 오당 안동숙 미술대회'가 열린다. 9일에는 국악인 명창 신영희 씨를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등 아시아의 민속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평일 1~2개, 주말 3~4개의

다양한 공연이 축제장 곳곳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장을 3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함평군은 1999년부터 함평 나비대 축제를 개최해 '생태관광 도시'와 '친환경 농업군'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행사를 취소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목포무안신안축협 우량한우 육성 박차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이 우량한우 암소집단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최근 축협 녹색한우타운 3층 세미나실에서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 130여 한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량 한우암소집단 조성사업에 대한 2014년도 결과보고와 2015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 및 사업설명회에서는

지난해 농업중앙회 축산연구원과 축협 간에 협약한 1800여 마리의 암소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역시 3000여 마리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량 한우암소 집단 조성사업은 적정 종모우(種牡牛=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수소) 정액 선정기준 마련을 통해 한우암소 개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우농가에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신안군 보건소 등 공중보건의 59명 배치

신안군은 최근 거제도, 홍도를 포함한 17개 보건기관과 3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59명을 배치했다.

군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6개소에 56명(의과 28명, 치과 12명, 한의과 16명)을 배치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신안 대우병원 의과 2명, 신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한의과 1명을 각각 배치했다. 특히 거제도과 홍도에는 내과

와 신경외과 전문의 각 2명씩을 배치해 관광객과 주민의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군은 전국적인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응급환자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내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22명을 선지역에 우선 배치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최근 영광군 들녘에서 새싹보리 수확이 한창이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새싹보리 생산 농가소득 '쑥쑥'

새싹보리, 기능성 분말 식품 '폴리코사놀' 개발 수출 앞뒤

'보리산업 특구'인 영광군이 새싹보리를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발굴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2년부터 보리산업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새싹보리를 시험 재배한 결과 올해 타지역보다 품질 좋은 새싹보리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은 보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보리잎차와 보리분말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과 동시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관내 기업인 ㈜새싹보리(대표 김광석)이 출시한 새싹보리 분말은 '폴리코사놀'(Policosanol) 등 기능성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식품소재로서의 가치가 높기 평가받아 국내는 물론 일본 수출까

지 앞두고 있다.

또한 연중 생산 가공으로 농업인과 계약재배 면적이 점점 늘고 있어 관내기업과 농업인 상생의 길을 열어주었다.

원래 보리는 전년 가을에 파종해 다음해 봄에 수확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친환경 무농약 재배로 2월 하순에 파종해 50여일만에 수확함으로써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리산업 특구"답게 알곡 보리는 가을에, 새싹 보리는 봄에 파종하는 차별화된 보리 생산 시스템을 정착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이북 5도민 무안군연합회 망향제

'제4회 이북 5도민 무안군연합회 망향제 및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와 이북도민회 자매결연 14주년 기념식'이 최근 무안읍 물맞이공원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다.

이북도민 무안군연합회(지회장 이원섭)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철주 군수와 이윤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이북 5도민, 자유총연맹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향탑 참배,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이원섭 이북도민 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무안지역 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북도민 무안군연합회는 지난 1999년 설립후 그동안 백령도와 임진각에서 망향제를 지내왔다. 그러나 연로한 1세대들이 먼 곳까지 가서 망향제를 지내는 것을 안타까워한 무안군의 지원으로 물맞이 공원에 망향탑을 건립해 4회째 망향제를 지내고 있다. <남약=임동현기자 idh@

신안 자은면 풍력발전소 건립 '마찰'

주민들 반대 시위 중 신안군 공무원 1명 다쳐

신안군 자은면에 조성중인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 2012년 12월 발전사 4개사와 5GW 풍력 육상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발전사는 (주)천사풍력 특수목적법인(SPO)을 설립한 후 2014년 6월 42MW 발전허가증을 취득했고 올 1월 신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7만9780㎡(풍력발전기 14기×3MW)를 받고 자은면 와우리와 외기리, 분계리 등지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다.

풍력단지 조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다.

찬성측 주민들은 "섬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풍력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아니면 지역 경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토지 보상 관례에 동의서만 체결했을 뿐 보상은 이뤄지

지 않았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산림훼손에 따라 농가와 농작물에 모래 유입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자은면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주민 30여명은 지난 13일 자은면 와우리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 사무실 진입도로에서 트랙터를 동원해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청 공무원 A씨가 전치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군 노조는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폭력한대해서 공권력이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민선 6기 들어 풍력발전 설치 사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개발행위 허가를 고심했지만 건설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우려, 조건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해쓷음 부동산

수완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 현진에버빌
1단지 1층 / 53평
정남향 / 초중고 인접 / 로얄동 / 즉시입주

◆ 전세 4억
(월세 보2억/월100만원)

공인중개사무소 674 - 2006